

[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]

2020.03.22

엡 1:1-2

정성록 목사님

엡 1:1-2

-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
-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

- ♣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처지나 환경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자기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.
- ♣ 바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. 또한 자신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메신저로 대사로 부르셨다는 사명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, 그 목적을 향하여 달음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다.
- ♣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도라고도 하며,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한다.
- ♣ 성도라는 단어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담겨있으며,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믿음의 대상이 표현되어 있으며,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포함되어 있다.
- ♣ 현재는 성도라는 말이,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너무도 흔해졌다.
- ♣ 예전에는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뜻하였으나, 요새는 퇴색되어져서 비아냥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.
- ♣ 요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,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.
- ♣ 우리는 [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]로 살아가야 한다.
- ♣ [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]는 “성도”라고 표현하며, “신실한 자”라고 표현한다.
- ♣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를 의미한다.
- ♣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다.
- ♣ [거룩]이라는 단어는 뜻이 매우 높으며 위대하다는 것이 사전적 의미이다.
- ♣ [거룩하신 하나님]이라는 의미는 높고 위대하신,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.
- ♣ 그러나, [거룩]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, 매우 높으며 위대하다는 의미 이전에, [구별되다], [성별되다]라는 의미가 있다.
- ♣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일까?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한다.
- ♣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되었다.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, 우리는 피조물로 구별되었다.
- ♣ [거룩]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단어이다.
- ♣ 우리 인간은 약점이 많으나, 하나님은 약점이 없으시다. 하나님은 완벽하시다.
- ♣ 하나님과 인간은 구별된다. 즉, [거룩]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이다.
- ♣ [거룩]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이고,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이다.
- ♣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하여 [성도]라고 하고 있다. 즉, [거룩한 무리]라고 하고 있다.
- ♣ 바울이 사용한 [성도]란 의미는 수동형으로 사용되었다. 즉, 스스로 거룩해 지는 것이 아니라, 누군가에 의해서 거룩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♣ 성도는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, 거룩해 지도록 되었다.
- ♣ 어떻게 에베소 구성원들이 [성도]라고 하게 되었을까? 이는 출 19:5-6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.

출 19:5-6

-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
-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

- ☞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.
- ☞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.
- ☞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.

레 19:2

-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니라

- ☞ 하나님께서 거룩하므로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.
- ☞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부르셨다.
- ☞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, 어떻게 부르셨는가? 출 19:4에 답이 있다.

출 19:4

-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

- ☞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펴서 우리를 업어서 부르셨다.
- ☞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.
- ☞ 출 19:6에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 하셨다.
- ☞ [거룩]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,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, 하나님께 순종하므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.
- ☞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.
- ☞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다.
- ☞ 세상에는 악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으며, 선인 같은 불신자가 있다.
- ☞ 우리가 보는 세상의 것이 [거룩]의 기준은 아니다.
- ☞ [거룩]의 기준은 무엇인가? 구약에 의하면 같은 그릇이라도 성전에 쓰이는 그릇이 [거룩]한 그릇이라고 생각했다. 즉, 그릇 자체가 [거룩]한 것이 아니다. 성전에 쓰이는 그릇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[거룩]한 그릇인 것이다.
- ☞ 성전에 쓰이는 물건들은 모두 [거룩]한 물건들이다.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[거룩]한 것이다.
- ☞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,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.
- ☞ 즉, 하나님께서 우리를 [거룩]하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[거룩]한 존재가 된 것이다.
- ☞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[거룩]한 존재가 된 것이다.
- ☞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[거룩]한 존재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.
- ☞ 나의 행실은 변화가 없으나,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[거룩]한 존재로 되게 하셨다.
- ☞ 나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,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나는 [거룩]한 존재가 된 것이다.
- ☞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안으로 꼭 껴안아 주셨다.
- ☞ 그러므로, 우리의 정체성은,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발견될 수 있으며, 하나님으로부터만 출발

할 수 있는 것이다.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되어있다.

- ☞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했기 때문에 [성도]들이라고 하는 것이다.
- ☞ 하나님께서 우리를 [성도]로 선택하여 부름 받은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같아 보이나, 본질적으로 다릅니다.
- ☞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신다.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.
- ☞ [성도]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,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셨다는 뜻이다.

갈 1:3-5

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

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

5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

- ☞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다.
- ☞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.
- ☞ 성도가 살아야 하는 곳은 세상이다. 교회가 아니다.
- ☞ 옥한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, [성도]란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백성이며, 세상으로 보내진 [거룩한 제자]이다.
- ☞ 내가 거룩한 자이므로,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.
- ☞ 나의 행동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, 나는 이미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.
- ☞ 예배의 거룩함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희석되어서는 안된다.
- ☞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이다.
- ☞ [성도]로 부르셨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. 또한 [성도] 라고 부르시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끝도 있다.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[성도]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.
- ☞ [성도]라는 이름 안에는 신실한 자라는 의미가 있다.
- ☞ 옥한흠 목사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다. [성도]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이름이라면, [신실한 자]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믿는 자의 독특한 면모 즉, 정직하고 성실한 인품을 표현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.
- ☞ [성도]는 믿는 자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면, [신실한 자]라는 것은 그 존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모습이다.
- ☞ [신실하다]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[피스토이스]라는 단어이다.
- ☞ [피스토이스]라는 단어는 신뢰하거나 믿을만한이라는 뜻 이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, 믿음을 행사하는이라는 뜻이 더 강조되어 있다.
- ☞ 내가 어떻게 신실한 자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성도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 이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그 표현에 담겨져 있다.
- ☞ [성도]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라는 뜻이 신실한 자라는 뜻이다.
- ☞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.
- ☞ 그러므로 [성도]라는 존재 자체는 신실한 자의 면모, 특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.

♣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딘후 2:11-13에 기록되어 있다.

딘후 2:11-13

- 11 미쁘다 이 말이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
- 12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
- 13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

- ♣ 하나님께서 우리를 [성도]라고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나,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들은 거룩을 추구하여 되는데, 그 거룩을 추구하는 것조차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싶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.
- ♣ 미쁘다는 [신실하다]는 뜻인데,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실할 수 없으나,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.
- ♣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.
- ♣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요,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며,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으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[성도]라는 이름 안에 있는 것이다.
- ♣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, 거룩하게 만듬으로 출발하였으므로,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,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,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.
- ♣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까요?
- ♣ 초대 교회에는 두가지에 직면한 문제가 있었다. 그것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다.
- ♣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다. 그러나 거룩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, 율법을 지켜야 거룩해진다는 것은 해결된 것이다.
- ♣ 영지주의는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, 헬레니즘 사상이었다.
- ♣ 영지주의는 영혼은 깨끗하나 육체는 더러운 존재라는 것이다. 즉, 영혼은 선한 것이며,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.
- ♣ 그러나, 성경은 영과 육이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.
- ♣ 영지주의에는 행동이 없다. 왜냐하면, 육체가 하는 것은 모두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.
- ♣ 그래서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며, 예배에 참석하고, 예배당 안에서의 교제는 거룩하나,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악하다고 한다. 선하지 않다라는 이원론을 주장한다.
- ♣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. 롬 12:1에 말씀하셨다.

롬 12:1

-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

- ♣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될 수 있다.
- ♣ 예수 그리스도의 삼인방 : 베드로, 야고보, 요한
- ♣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이원론인 영지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.
- ♣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다.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는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다.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다.
- ♣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[성도]다 [신실한 자]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이원론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. 즉, 에베소 교인들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며, 그것은 에베소 지역

에서 나타나야 함을 이야기하며,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에베소 교인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.

- ☞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,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,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.
- ☞ 우리는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는데,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수없이 넘어지고 있다.
- ☞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한 자답게 사는 비결은 엡 1:1에 나와있다.

엡 1:1

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

- ☞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 없다.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.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. 그것이 가능케 한다.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.
- ☞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? 요 15:5

요 15:5

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

- ☞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
- ☞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.
- ☞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문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요 그 예수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반응, 신실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.
- ☞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,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.
- ☞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.
- ☞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하며,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면,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.
- ☞ 우리가 [성도]라면,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[신실한 자]라면,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, 하나님께서 만드셨고,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,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.
- ☞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, 먼저 사랑하게 된다.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된다.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바뀌게 된다.
- ☞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.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한다.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.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여야 한다.
- ☞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.
- ☞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하며, 그럴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.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 주신다.
- ☞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다.
- ☞ 성도는 세상과 죄와 구별된 무리이다.
- ☞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삶과 인격을 믿어야 한다.
- ☞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.

- ♣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.
- ♣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.
- ♣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한다.
- ♣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적을 행하시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사실을 믿어야 한다.
- ♣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되심을 믿어야 한다.
- ♣ 이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.
- ♣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삼 일만에 살아나심을 믿어야 하며,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.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고백이다.
- ♣ 한국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복음을 약화시켰다. 복음의 가치를 없게 만들었다.
- ♣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고 있다.
- ♣ 우리는 거룩한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.
- ♣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.
- ♣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.

요점

- ☞ 우리는 [성도]이며, [신실한 자]이다. 그러므로 우리는 [성도]답게, [신실한 자]답게 살아야 한다.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.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.

기도 제목

- 🙏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자녀, [성도]라는 명예에 걸맞게 살아가게 하소서.

적용

- ※ 성경 통독을 하루에 3장씩 읽겠다.
- ※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워드 작업을 시도하겠다.